

2026년 10월 태국 관광시장 동향

'26. 10. 30(금) /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

□ 태국 관광시장 동향

○ 태국 방문 외래객, 10월 17일 누적 2,4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 확대

- 2026년 1월 1일~10월 17일 태국 방문 외래객은 2,44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2% 감소했으며, 관광수입은 1조 1,895억 5,500만 바트(약 48조 원)를 기록함. 주요 방태국 시장은 중국(414만 명), 말레이시아(310만 명), 인도(184만 명), 러시아(133만 명), 한국(90만 명) 순으로 집계됨. 특히 누적 외래객 감소율이 9월 19일 3.67%에서 10월 17일 4.12%로 확대되면서 하반기 관광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0월 11~17일 외래객은 48만 7,410명으로 전주 대비 0.83% 소폭 증가함. 중국 국경절 연휴 종료로 단거리 시장은 4.04% 감소했으나, 유럽·미주 지역의 단기 방학과 겨울철 성수기 진입에 힘입어 장거리 시장은 10.55% 증가함. 단거리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장거리 관광수요가 전체 입국객 감소를 일부 상쇄하는 양상

○ 태국 관광업계, 고유가에 따른 운영비·유동성 부담 확대

- 태국여행업협회(ATTA)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관광버스·운송업체·호텔 등 관광 관련 기업의 운영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함. 에너지 가격 15% 상승 시 총운영비가 약 3% 증가하며, 원자재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 간접적인 비용 상승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함
- 특히 해외 여행사와 사전 계약을 체결한 관광업체는 비용 상승분을 상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워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관광기업은 비용 상승이 지속될 경우 1~3개월 내 유동성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됨. 이에 ATTA는 관광업계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에너지 가격 안정화, 중소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및 추가 규제비용 최소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함

○ 태국 호텔업계, 관광수요 회복 지연 및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 악화

- 태국 카시콘경제연구소(KResearch)에 따르면, 2026년 1~9월 호텔·숙박업체

폐업 건수는 1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반면, 신규 등록은 779건으로 31.2% 감소함. 2025년 기준 전체 숙박업체의 51%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소규모 업체의 적자 비율은 54%에 달하는 등 중소 숙박업체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래객 회복 지연에도 숙박시설 공급은 지속 확대되면서 업계 내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임. 2026년 상반기 객실 공급은 약 87만 6천 실로 2019년 대비 11.7% 증가했으나, 객실당 연간 숙박객 수는 2019년 249명에서 2026년 22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2026년 평균 객실요금은 전년 대비 0.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인건비 등 운영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2027년에도 숙박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구조조정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됨

□ 정부정책 동향

○ 태국관광청(TAT), 2027년 관광수입 5% 성장 목표로 아시아 5대 시장별 맞춤형 고부가 관광객 유치전략 추진

- 태국관광청(TAT)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5개 시장을 핵심 공략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가별 관광객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임. 대만은 개별여행(FIT)·미식·웰니스, 베트남은 가족·쇼핑·MICE, 말레이시아는 육로 관광,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친화·웰니스, 싱가포르는 프리미엄·지속가능 관광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유치에 집중할 방침
- 특히 2027년 관광수입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및 주요·지방 관광도시 간 방문객 비중 60:40 달성을 목표로, 관광객 수 중심에서 체류기간·관광소비·재방문을 등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함. 아울러 항공사·여행사·OTA와의 협력을 통한 신규 항공노선 및 좌석 공급 확대, 국제행사 유치와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시장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 태국 정부, 관광업계 반발 및 관광수요 위축 우려로 출국세 도입 잠정 연기

- 태국 정부는 1983년 도입 후 1991년부터 사실상 징수가 중단된 출국세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해 왔으며, 2026년 4월 관련 논의가 다시 부각된 이후 9월 30일~10월 29일 법률안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에 착수함. 당초

국적에 관계없이 항공편 출국객에게 1인당 1,000바트(법정 상한 5,000바트)를 부과하고, 징수액을 국내 관광산업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 그러나 태국여행업협회(ATTAA)와 태국호텔협회(THA) 등 유관업계가 여행 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재무부는 10월 22일 출국세 도입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함. 4분기 관광 성수기 수요 유지와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항공운영비 상승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재검토할 방침임. 다만 별도로 추진 중인 외국인 관광객 대상 입국부담금(450바트) 도입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도입 검토 중

○ 태국관광청, 단체 교통비 및 국내선 항공료 지원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추진

- 태국관광청(TAT)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 간 관광객 이동 촉진을 위해 단체관광 교통비와 국내선 항공권 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함. 「Amazing Thailand: Travel Thailand with Tours」 사업을 통해 타 지역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버스 임차료는 여행당 최대 4만 바트(약 166만원), 승합차는 최대 1만 바트(약 41만원)를 지원하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0월 15일~2027년 1월 31일임
- 아울러 7개 항공사와 협력해 국내선 항공권 편도 500바트(약 2.1만원) 할인 사업을 시행하고, 총 9만 9,000석을 지원할 계획임. 10월 23일 기준 지원 물량의 약 47%(4만 6,780석)가 소진되었으며, 탑승기간은 2027년 1월 15일까지임.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내여행 수요 확대 및 지방 관광지 방문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단체관광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수입 약 2억 880만 바트(약 86.5억원) 창출을 목표로 함

○ 태국관광청, 유네스코 문화유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개발

- 태국관광청(TAT)은 2027년 관광마케팅 전략인 ‘The Year of Transformation’의 일환으로 전국 55개 이상의 지역사회 관광지와 유네스코(UNESCO) 인증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함. 유네스코 세계유산 9곳, 창의도시 9곳, 세계지질공원 2곳 등 지역별 문화·역사·자연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주요 관광지에 집중된 방문객과 관광수입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계획임
- 아울러 치앙라이·우본랏차타니·송클라·뜨랏·사뭇송크람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는 시범사업을 검토 중. 단순 관광지 방문 중심에서 지역문화 체험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전환하고, 관광객 체류기간·평균 소비액·지역사회 수익 창출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

□ 기타 동향(태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동향)

○ 태국인 해외여행 수요 역대 최대 전망, 중국·일본 강세 속 한국 역시 성장세

- 태국여행업계는 2026년 해외여행객이 전년 대비 20~25% 증가한 1,560만 ~1,6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개별여행(FIT)과 단체여행 수요도 각각 15%,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주요 여행목적지로는 중국이 무비자 정책과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4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역시 엔화 약세에 힘입어 6~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최근 방한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타이 비엳젯항공은 한국 노선 평균 탑승률이 84% 수준 이라고 밝히는 등 일정 수준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나, 항공사 간 운임 경쟁과 중국·일본 등 경쟁국으로의 여행수요 분산은 지속적인 시장 회복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동남아 여행객, 여행비용 상승에 따른 가성비 중시 및 목적형 여행수요 확대

-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래블로카(Traveloka)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동남아 5개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예약·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항공료 등 여행비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족여행·공연·문화유산 체험 등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여행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특히 태국인 여행객의 중국 충칭·청두·베이징 여행 예약 건당 인원수가 증가하는 등 가족·단체 중심 여행수요 확대가 관찰됨
- 아울러 동남아 지역에서 베트남 푸꾸옥, 중국 항저우, 일본 나고야 등이 새로운 인기 여행지로 부상했으며, 서울도 2분기에 이어 3분기 주요 인기 여행지에 포함됨. 여행객들이 단순 관광보다 여행 목적에 부합하는 경험과 가격 대비 가치를 중시함에 따라, K-컬처 공연·지역 문화체험 등 특화 콘텐츠와 항공·숙박·관광상품을 연계한 목적형 방한상품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태국인 방일 관광객, 연간 성장세 유지 속 하반기 여행수요 둔화 조짐

-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6년 1~9월 일본을 방문한 태국인은 83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며 일본의 주요 방일시장 중 6위를 기록함. 다만 9월 한 달간 방일 태국인은 4만 4,8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 감소했으며, 8월(-9.3%)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하반기 들어 방일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다만, 태국 관광업계는 엔화 약세에 따른 여행비용 부담 완화와 일본의 관광·쇼핑 콘텐츠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2026년 연간 방일 태국인이 전년 대비 약 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중국의 무비자 정책과 가격경쟁력 강화로 태국인 해외여행 수요가 중국에 집중되는 가운데, 일본 역시 최근 월별 방문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경쟁국 간 태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이 지속될 전망

□ 지사 의견 및 향후 사업 방향

○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태국 특화 관광 상품 개발 기반 구축

- 부산·여수 등 초광역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고령·함천 등 신규 지방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현지 여행업계 협업 상품개발 추진
- TV 프로그램 촬영 등 미디어 협업 및 불교 및 전통 신앙·운세 문화 등 태국 현지 특화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신규 방한상품 개발·확대

○ 현지 유력 인플루언서 및 생활밀착형 유통채널 협업을 통한 한국관광 홍보 다각화 및 방한수요 확대

- 대규모 현지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제작 및 SNS 확산으로 방한관광 관심도 제고 및 잠재 방한수요 창출
- 세븐일레븐 등 태국 현지 생활밀착형 유통채널과 협업한 온오프라인 광고 추진으로 한국관광 홍보 점점 확대 및 대중 인지도 제고

※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및 태국 관광체육부 홈페이지 통계 자료 참고, 항공사 및
여행사 동향 정보 수집, 태국 관광청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 종합

1.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40072479> (Nation Thailand, 2026-10-19)
2.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40072247> (Nation Thailand, 2026-10-14)
3.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tourism/40072712> (Nation Thailand, 2026-10-25)
4.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tourism/40072745> (Nation Thailand, 2026-10-26)
5.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tourism/40072743> (Nation Thailand, 2026-10-26)
6.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cy/40072627> (Nation Thailand, 2026-10-22)
7.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40072000> (Nation Thailand, 2026-10-08)
8.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tourism/40072486> (Nation Thailand, 2026-10-19)
9.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tourism/40072647> (Nation Thailand, 2026-10-23)
10.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40072467> (Nation Thailand, 2026-10-19)
11. <https://www.bangkokbiznews.com/business/1255113> (Bangkokbiznews, 2026-10-10)
12. <https://www.traveldailynews.asia/statistics-trends/southeast-asia-travel-trends-traveloka/>
(TravelDailyNews, 2026-10-20)
13.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72706> (Nation Thailand, 2026-10-25)

붙임

한-태 관광통계 및 항공운항 정보

○ 한-태 관광통계

(태국인 방한규모) '26.9월 기준 23,545명

구 분	'26.6월	'26.7월	'26.8월	'26.9월
태국 → 한국	22,035	21,318	19,748	23,545
(전년 대비)	(4.0%)	(2.2%)	(4.8%)	(9.3%)

(한국인 방태규모) '26.9월 기준 70,997명

구 분	'26.6월	'26.7월	'26.8월	'26.9월
한국 → 태국	47,169	87,847	95,066	70,997
(전년 대비)	(-52.1%)	(-32.6%)	(-29.0%)	(-30.1%)

○ 항공동향

(한-태 항공노선) '26. 10. 29일 기준 주 158편 운항

항공사	주간 운항현황
대한항공	방콕-인천 주 28회 (매일 4편 운항)
	푸켓-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아시아나항공	방콕-인천 주 14회 (매일 2편 운항)
	푸켓-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타이항공	방콕-인천 주 21회 (매일 3편 운항)
제주항공	방콕-인천 주 4회 (일, 월, 목, 금 운항)
	방콕-부산 주 4회 (월, 목, 금, 일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4회 (월, 화, 금, 토 운항)
진에어	치앙마이-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트리니티항공	방콕-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방콕-대구 주 4회 (일, 월, 목, 금 운항)
에어부산	방콕-부산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4회 (일, 월, 목, 금 운항)
에어프레미아	방콕-인천 주 5회 (일, 월, 화, 목, 금 운항)
이스타항공	방콕-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부산 주 7회 (매일 1편 운항)
타이 비엣젯	방콕-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총 계	주 158편